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코퍼스 기반 분석*

윤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Yoon, Hyunsook. (2009). A corpus-based analysis of vocabulary in the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1 textbooks.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87-107.

The recent conspicuous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has popularized corpus linguistics approaches in vocabulary research. Corpus analysis can provide us with valuable information about texts such as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vocabulary in the 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ocabularies that are used in the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1 textbooks. This study constructed a corpus of 25 different textbooks, consisting of 307,454 words. By use of corpu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the words, type/token ratio (TTR), and high-frequency word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English textbooks and British National Corpus. It also investigated the use of words in the National Curriculum's basic word list. The results revealed that while the number of types and tokens increased in the revised textbooks, the TTR dropped, indicating that words are recycled more and it can make the text easier for students. Also, many computer and technology related words are newly introduced, and the increased diversity in the names of overseas regions seems to reflect the expanded role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re arises a concern about the basic word list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its regulation of numbers of vocabulary.

[corpus/vocabulary/National Curriculum/코퍼스/어휘/국가교육과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언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Myung-Soon Han, 2008; Nahk-Bohk Kim, 2008; Wilkins, 1976). 특히, 많은 연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구들이 어휘 교육에 있어서 빈도수 높은 어휘 학습의 중요성(frequency-based vocabulary teaching)을 강조하고 있다(Conrad, 2000; Kennedy, 1987; McEney & Wilson, 2001). 이는 빈도수가 높은 어휘가 바로 해당 언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로서 이를 학습할 경우, 이해와 생산에 있어서 그 만큼 적용력이 높으므로 시간 대비 학습 효과성이 높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은 특히 학습 초기에 이러한 고빈도 어휘들이 빨리 습득되어야만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Nation과 Waring(1997)은 학습자들이 소량이라도 빈도가 높은 어휘들을 알고 있는 것이 넓은 비율의 텍스트 이해를 돕는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들어 코퍼스를 이용한 어휘 선정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후 “개정 교육과정”이라 칭함)을 발표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관련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주로 개발자의 주관적인 직관에 기반을 두어 어휘가 선정되었던 기존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정 교육과정은 코퍼스와 같은 객관적인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는 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장경숙, 2007). 또한 어휘 통제로 인해 교과서 집필 및 학습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막기 위하여 어휘 수가 소폭 증가되었다. 이러한 어휘수의 확대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면이기도 하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집필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올해부터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검정 절차를 걸쳐 총 25권의 교과서가 선정되었다. 이에 새로이 개정된 교과서에 객관적 언어자료에 근간하여 선정된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어휘의 분포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자언어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나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수업 자료가 사용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위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영어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훌륭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쓰인 어휘의 분포를 알아보고, 제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개정 교과서의 어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개정 어휘관련 지침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어민 코퍼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사용된 어휘가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 목록의 사용 현황 및 합리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25종 전체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에게 중1 교과서 어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 어휘 관련 지침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시 어휘 사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분포 및 특징은 무엇인가?
- 2)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는 7차 교과서와 원어빈 코퍼스(BNC)와 비교하여 다빈도 어휘 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중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의 사용 빈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코퍼스 분석

코퍼스는 실제로 사용된 언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여 언어자료에 대한 컴퓨터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McEnery & Wilson, 2001).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쓰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는 빈도수나 언어, 어법(phraseology)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빈도수 분석이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공 가능하게 된 빈도수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알려줌으로 해서, 어휘 교육에 있어 어휘 선정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고빈도 어휘를 먼저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역설한 바 있다(Laufer, 1989; Nation & Waring, 1997). 빈도수가 높다는 말은 그 만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라는 뜻이며, 이러한 어휘를 먼저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많은 상황에서 목표 언어를 자유롭게 이해하거나 발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도수를 바탕으로 한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과서 어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관하여 코퍼스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부분 학급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나 혹은 몇몇 대표적인 교과서를 선정하여 그 중 특정 어휘나 문법 사항의 쓰임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수정, 2006; 설영, 2007; 유성자, 2007; 천윤희, 2008).

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몇몇 한정된 수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반면, 교과서 전체를 하나의 코퍼스로 구축하여 전체에 사용된 어휘의 쓰임을 보았다는 점에서 가장 폭넓은 연구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바로 권인숙(2002, 2004)의 연구이다. 권인숙(2002)은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 2학년 영어 교과서 코퍼스를 구축하여 어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7차 과정의 교과서들이 6차 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319개의 고빈도 어휘가 전체 교과서의 80%에 이르고 있었고, 상당수의 고빈도 어휘들이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들과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품사별로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순으로 많이 사용됨을 발견하였다. 한편, 권인숙(2004)은 권인숙(2002)을 확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을 중학교 1, 2, 3학년을 모두 포함하여 6차 교과서와 7차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차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가 보다 많은 어절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6차 교과서가 7차 보다 많은 어휘의 반복 횟수를 보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6차는 저학년일수록 반복이 많았고, 7차는 고학년일수록 반복이 많았다는 점이다. 6차 보다 7차가 학년별 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더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OBUILD와 CANCODE 원어민 코퍼스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차이점보다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권인숙의 연구는 중학교 전 학년에 걸친 전체의 교과서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유용한 코퍼스 분석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교과서 개정과 어휘 관련 지침

교과서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학습 도구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자료의 집합이 아니라, 교수법, 커리큘럼, 그리고 언어교육 정책이 모두 녹아 있는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어떠한 언어자료를 담을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교과서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어휘나 문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DiVito, 1991; Glisan & Drescher, 1993; Holmes, 1988; Ljung, 1990; Mindt, 1996, 1997; Shim, 1999). 교과서에 담긴 언어 자료는 언어교육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교과서는 실제 언어 사용을 잘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교과서가 주요 학습 도구인 EFL 상황에서는 교과서 언어 자료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국가가 교과서를 검정하여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서는 그 중요도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어휘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의 연령 및 수준, 학습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휘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과 어휘 목록’을 보면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기본 어휘수가 2,067개에서 2,315개로 상승되었다. 또한 각 학년별 어휘학습 수를 보면, 기존 7차에서는 초등 450 낱말 내외, 7~10학년 1,250 낱말 내외로 전체 누계 1,700 낱말 내외였었는데, 개정 교육과정 지침을 보면 초등 500낱말 이내, 7~10학년 1,290 낱말 이내로 전체 누계 1,790 낱말 이내로 증대되었다. 이중 초등 3~6학년에서는 500 낱말 이내에서 학습하되,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 권장 어휘 736개 중에서 375 낱말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중등인 7~10학년에서는 교재 집필시 사용 가능한 신출 낱말의 75%이상을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집필된 교과서가 현장에서 올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현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먼저 개정 시행되었고, 매년 순차적으로 상급 학년도 바뀔 예정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개정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 대상 교과서는 개정 교과서 *Middle School English I*에 해당하는 총 25종으로 저자명과 출판사명은 표 1과 같다(7차 교과서 정보는 부록 참조).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듣기 대본을 포함하여 교과서에 실린 모든 텍스트이다. 수준별 학습활동책의 병용이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책은 제외하고 교과서만 분석한다. 이것은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습활동책은 수준별 학습이나 자율 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대부분의 내용이

교과서와 공통된 것으로 중복됨을 감안하였고, 아울러 학습활동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7차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분석에는 듣기 자료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듣기 자료가 읽기 자료와 함께 교과서에 사용되는 중요한 언어 자료로서, 말하기 활동도 대부분 듣기 자료에 기반을 두어 연습을 한다는 데 기인한다. 한편,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한 7차 교과서의 어휘에 관한 수량적 정보는 권인숙(2002, 2004)에서 추출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 교과서에 대한 코퍼스가 구축되었다.

표 1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저자명과 출판사명

	저자명	출판사
1	이병건 외 4인	(주)고려출판
2	김임득 외 7인	(주)교학사
3	권오량 외 5인	(주)금성출판사
4	이완기 외 6인	(주)금성출판사
5	장영희 외 4인	(주)능률교육
6	박준언 외 6인	(주)대교
7	김용진 외 6인	(주)도서출판디딤돌
8	이창봉 외 5인	(주)도서출판디딤돌
9	김성근 외 7인	(주)두산
10	이병민 외 7인	(주)두산
11	이기정 외 5인	(주)비유와상징
12	이소영 외 6인	(주)에듀왕
13	신정현 외 3인	(주)와이비엠시사
14	장경렬 외 5인	(주)좋은책 신사고
15	이다미 외 4인	(주)지학사
16	이흥수 외 6인	(주)진학사
17	김덕기 외 5인	(주)천재교육
18	이인기 외 5인	(주)천재교육
19	이재영 외 6인	(주)천재교육
20	함순애 외 4인	(주)천재문화
21	강용순 외 4인	대한교과서(주)
22	최인철 외 5인	대한교과서(주)
23	김충배 외 5인	박문각
24	임병빈 외 7인	성안당
25	이창수 외 6인	Happy House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1) 코퍼스 구축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교과서 언어 자료를 통합한 코퍼스가 구축되었다. 코퍼스 구축 작업은 컴퓨터 작업 이외에 많은 수동 작업을 동반하였다. 우선 25종의 개정 교과서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입력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또한 듣기 대본은 보통 부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모두 입력되었다. 이렇게 전체의 코퍼스가 구축되는 한편, 7차 교과서와의 듣기 및 읽기 자료의 어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개정 교과서의 듣기 자료와 읽기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다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언어 자료를 입력한 후 오타 등을 검토 수정하였다. 이 작업을 하는 중에 특히 듣기 대본과 말하기 부분 등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대화자들을 표기하는 표식인 A/B, M(male)/F(female), M(man)/W(woman) 등은 모두 제외되어 저장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언어 자료 분석을 위해서 WordSmith 5.0이 사용되었다. WordSmith는 Worldlist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의 쓰임에 대해 어절 수, 어휘의 종류, 문장 수, 평균 단어 길이 등과 같은 수량적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구축된 교과서 코퍼스는 문법 범주 부착(tagging)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 추후 분석을 위하여 WordSmith로 추출된 워드리스트에 많은 후속 수동 작업이 잇따랐다.

먼저 모든 어휘를 추출한 이후 어휘에 대한 원형작업(lemmatization)이 진행되었다(권인숙, 2004). 이는 일종의 어휘군(word family) 개념을 도입하여 같은 어휘의 굴절형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즉, 굴절형의 규칙변화 형태인 경우, 동일 어휘로 간주하는 것이다. 삭제된 굴절형은 명사(-s), 동사(-s, -ing, ed), 비교급형(-er, -est)이다. 예를 들어, balloons는 balloon으로, adds, adding, added는 add로, smarter, smartest는 smart로 통합되어 원형 작업되었다. 반면, little과 같은 불규칙 형용사의 비교급형인 less나 least와 같은 경우는 원형작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권인숙(2004)과 같이 중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과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원형 작업을 하지 않고 별개의 어휘로 취급하였다.

이외에도 하나의 어휘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모두 수동 작업을 통하여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WordSmith는 Brown과 brown을 같은 어휘로 취급하여 빈도수를 산정하였는데, 전체 빈도수 중에서 이름의 성을 나타내는 Brown과 색깔을 나타내는 brown으로 쓰인 경우가 별도로 세어져서 각각 다른 항목으로 인식되었다.

코퍼스 어휘의 분석 단위로는 어절과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공백과 문장 부호로 구분되는 어휘를 어절이라고 하였으며 총 어절 수는 실제 등장한 횟수로 출현(token)이라고 한다. 한편, 단어는 서로 형태가 다른 종류의 어절로 유형(type)이라고도 불린다.¹

또한, 본 연구는 어휘를 크게 일반단어와 특수단어로 구분하였고, 일반단어에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포함되며, 특수단어는 외국 인명, 외국 지명, 한국 인명, 한국 지명, 한국 어휘, 제3국 어휘 등과 같은 어휘가 포함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어휘의 분포 및 특징

1) 어휘 분포

먼저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수는 표 2와 같다. 7차 교과서 전체의 어절 수는 172,355이고 개정 교과서의 전체 어절 수는 307,454로 개정 교과서에서 어절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15권에서 25권으로 채택 교과서 수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권 당 평균을 내 보면, 7차 교과서의 평균 어절 수는 11,490인 반면 개정 교과서는 12,298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단어 수도 7차 교과서의 3,680에서 개정 교과서에서는 3,984로 개정 교과서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각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휘 변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휘 변이를 측정하였다. Laufer와 Nation(1995)에 따르면, 어휘 변이(lexical variation)는 텍스트에 사용된 전체 어절 수와 서로 다른 종류의 단어 수 간의 비율을 말하며 유형수/어절수 $\times 100$ (type/token ratio, TTR)으로 나타낸다. 어휘 변이는 짧은 텍스트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어휘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휘 변이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텍스트에 다양한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텍스트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휘 변이의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동일 단어의 반복 출현 횟수가 높아진 것으로 텍스트는 비교적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어휘변이를 보면, 7차 교과서에서는 2.14였으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1.30으로 많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7차 교과서에 비해 개정 교과서에서 보다 많은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변이도는 감소한 것을 볼 때, 개정 교과서에서 단어의 보다 많은 반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¹ 본 연구에서는 이후 유형(type)은 단어 수로, 출현(token)은 어절 수라고 표기한다.

표 2
7차 교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어휘 분포

구분	어절 수(Token)	단어 수(Type)	어휘변이(TTR)
7차 1학년 교과서 15권	172,355	3,680	2.14
개정 1학년 교과서 25권	307,454	3,984	1.30

표 3은 7차와 개정 교과서 각각에 사용된 단어를 일반단어와 특수단어로 분류하여 나온 빈도수이다. 보다 많은 수의 교과서가 채택된 개정 교과서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수치상으로 훨씬 많은 수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한편, 전체 단어에서 차지하는 일반단어와 특수단어의 사용 빈도를 보면, 7차에 비해 개정에서 일반단어의 비율이 64.7%에서 67.1%로 증가한 반면, 특수단어의 사용비율은 35.3%에서 32.9%로 소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개정 교과서에 일반적인 어휘적 내용을 지니는 일반단어의 사용이 증가한 것이다.

표 3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단어 종류 구성의 빈도 비율

	7차		개정	
	빈도(%)	단어수(%)	빈도(%)	단어수(%)
일반단어	162,093(94.0)	2,381(64.7)	289,289(94.1)	2,671(67.1)
특수단어	10,262(6.0)	1,299(35.3)	18,165(5.9)	1,313(32.9)
계	172,355(100)	3,680(100)	307,454(100)	3,984(100)

표 4는 코퍼스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수에 대한 정보이다. 전체 코퍼스에서 단 1회만 사용된 단어, 다시 말해, 특정 교과서에서 단 1회만 출현한 단어의 수는 무려 658개로 전체 사용된 단어 수 3,984개의 16.5%에 해당한다. 한편, 전체 코퍼스에서 10회 미만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단어 수는 2,291개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57.5%이나, 그 출현 횟수를 보면 전체 코퍼스 307,454의 2.6%에 그친다. 이는 이러한 단어들이 추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교과서에서 반복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학년 내에서 보이는 비율로 보아서는 반복이 거의 되지 않고 1회성 출현에 그치는 어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많은 어휘 관련 연구들이 최소한 5-6회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어휘가 습득된다고 주장한 점을 생각해 보면(Nation, 2001), 어휘 학습에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4
개정 교과서의 저빈도 사용 단어 수

구 분	빈도	전체에서의 비율
1회 사용 단어 수	658	16.5%
1회 사용 단어의 전체 어절 수	658	0.2%
10회 미만 사용 단어 수	2,291	57.5%
10회 미만 사용 단어의 전체 어절 수	8,134	2.6%

2) 어휘 특징

교과서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개정된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이 눈에 띄는데,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상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이듯이,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 용어인 *cell phone*, *text message*, *blog*, *mobile*, *cyber* 등의 용어들이 현실을 반영하여 교과서 어휘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교과서가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교과서가 의사소통 증진이라는 교육과정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진정성 있는 자료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기술 관련 단어

	단어	빈도수
1	cell phone	137
2	Internet	97
3	text message(s)	64
4	online	53
5	blog	52
6	mobile	44
7	cyber(cyberspace)	35
8	Web	26
9	Website	23
10	UCC	13
11	USB	11
12	chatting	6

다음으로 일반단어 이외 특수단어의 사용 특징에 관해 알아보았다. 표 6은 가장 많이 쓰인 외국 인명 10위와 외국 지명 10위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 인명의 경우 7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
개정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 인명과 외국 지명 10위 단어

	외국 인명		외국 지명	
	7차 교과서	개정 교과서	7차 교과서	개정 교과서
1	Mike	Kevin	New York	Canada
2	Jane	Mike	London	America
3	Tom	Chris	Sydney	India
4	Susan	Tom	Paris	New York
5	John	Ben	Los Angeles	England
6	Ann	Eric	Washington	Australia
7	Mary	Lisa	Rome	China
8	Paul	Jane	Hawaii	London
9	Bill	Justin	Chicago	Japan
10	Ted	Kate	California	New Zealand

한편, 외국 지명의 경우 7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7차의 경우에는 6개가 미국 지명이면서 나머지 몇몇은 대표적인 서구의 지명이 사용된 반면,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외국 지명은 미국 관련 지명이 단 2개로 준 반면, *India, China, Japan* 등으로 좀더 다양해진 지명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전에 영어가 주로 미국영어나 영국영어로 국한되어 있으면서 영어를 주로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과 그들의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영어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영어가 특정 국가의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공통어(McKay, 2002)로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증대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7차 교과서와 원어민 코퍼스와의 다빈도 어휘 비교

1) 7차 교과서와의 비교

빈도수가 높은 어휘는 그만큼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로 학습에서 주는 수월성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중요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과서에 많이 출현하게 되는 다빈도 어휘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먼저 표 7은 개정 교과서의 듣기, 읽기 본문 코퍼스 각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50위 단어의 목록이다. 전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많은 기능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반면, 듣기자료와 읽기 자료는 그 특성상 사용되는 어휘가 다를 것이라는 예측처럼 몇몇 어휘들의 순위에서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자료에서는 *I*와 *you*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구어에서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보여준 반면, 읽기 자료에서는 *the*와 *a*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다른 BNC 자료와 같은 문어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또한, 듣기 자료에서는 *I'm*, *it's*, *don't*와 같이 축약형이 읽기 자료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hi*나 *oh* 같은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구어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7

개정 교과서 듣기, 읽기 본문에 나타난 최다빈도 50위 단어

순위	듣기	읽기 본문	순위	듣기	읽기 본문
1	I	the	26	good	but
2	you	a	27	at	was
3	to	I	28	that	her
4	is	and	29	not	about
5	the	you	30	on	very
6	a	to	31	we	school
7	do	is	32	am	there
8	it	in	33	of	this
9	what	my	34	want	what
10	my	are	35	too	day
11	and	of	36	think	from
12	this	it	37	there	people
13	are	for	38	it's	many
14	how	do	39	hi	I'm
15	like	we	40	oh	so
16	in	on	41	but	all
17	can	can	42	will	will
18	your	they	43	listen	how
19	for	she	44	please	be
20	yes	your	45	going	me
21	have	with	46	meet	them
22	I'm	at	47	with	go
23	go	have	48	no	not
24	about	he	49	school	good
25	me	like	50	don't	friends

표 8
7차와 개정 교과서에 쓰인 최다빈도 30의 단어

순위	7차 교과서	개정 교과서	순위	7차 교과서	개정 교과서
1	the	the	16	your	your
2	you	I	17	he	can
3	a	you	18	have	for
4	I	a	19	we	on
5	to	to	20	how	how
6	is	is	21	of	this
7	and	and	22	can	of
8	do	do	23	this	have
9	in	in	24	at	not
10	it	it	25	for	at
11	my	what	26	on	he
12	what	my	27	let's	she
13	go	go	28	she	listen
14	like	are	29	I'm	we
15	are	like	30	there	with

표 9
7차와 개정 교과서에 쓰인 기능어, 내용어 다빈도 어휘 비교

	7차 기능어	개정 기능어	7차 내용어	개정 내용어
1	the	the	is	go
2	to	I	are	are
3	you	you	have	like
4	I	a	like	how
5	a	to	go	have
6	and	is	was	not
7	in	and	how	listen
8	do	do	listen	we
9	it	in	think	yes
10	of	it	be	read
11	what	what	not	I'm
12	my	my	want	look
13	he	your	there	school
14	your	can	yes	friend
15	for	for	very	will
16	can	on	good	want
17	we	this	look	they
18	this	of	people	play
19	on	at	no	there
20	that	he	time	good

표 8은 7차와 개정 교과서 각각에서 가장 많이 쓰인 30위 단어 목록인데, 두 목록 사이에 그다지 많은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최다빈도 30위 단어가 대부분 기능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9에서는 기능어와 내용어를 구분하여 7차와 개정 교과서에 쓰인 다빈도 어휘를 비교하였다. 두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능어로서는 *the, I, you, a, to*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내용어는 상위 빈도 어휘는 비슷하되, 7차에서는 *think, very, good, people, time* 등이 많이 쓰인 반면, 개정에서는 *read, school, friend, play*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2) 원어민 코퍼스와의 비교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 관련 지침을 보면 원어민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하에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마련 시 코퍼스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가장 방대한 코퍼스 중의 하나인 British National Corpus(BNC)의 어휘와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를 비교하여 진정성 있는 어휘 자료의 근거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²

표 10은 각 코퍼스에 나타난 최다빈도 100위 단어 목록이다. 두 코퍼스가 많은 공통 어휘를 가지고 있는 반면, BNC 목록에 개정 교과서 보다 많은 기능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BNC가 100만 어절 이상의 코퍼스로 코퍼스 크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코퍼스에서 *the, a, and* 등의 어휘는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I*나 *you*는 개정 교과서에 훨씬 더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NC 코퍼스의 구성을 보면 90%가 문어이고, 10%가 구어인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어의 구성 비율이 훨씬 높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구어, 문어의 사용 구분 없이 기본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를 구분하여 최상위 어휘를 선정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²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어휘관련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교과서 집필 시 어휘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나, 교육과정에서 원어민 코퍼스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으므로 이와의 비교는 의미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개정 교과서와 BNC에 나타난 최다빈도 100위 단어

순위	개정	BNC	순위	개정	BNC
1	the	the	51	very	more
2	I	of	52	was	up
3	you	and	53	that	out
4	a	to	54	time	said
5	to	a	55	talk	who
6	is	in	56	get	about
7	and	that	57	but	do
8	do	is	58	be	some
9	in	it	59	take	them
10	it	for	60	don't	its
11	what	was	61	name	into
12	my	I	62	book	then
13	go	on	63	so	time
14	are	with	64	her	him
15	like	as	65	write	other
16	your	be	66	up	two
17	can	he	67	does	only
18	for	you	68	too	like
19	on	at	69	one	my
20	how	by	70	did	than
21	this	are	71	some	could
22	of	this	72	why	well
23	have	have	73	see	quot
24	not	but	74	lesson	now
25	at	not	75	English	your
26	he	from	76	meet	me
27	she	had	77	help	over
28	listen	his	78	thank	may
29	we	they	79	make	it's
30	with	or	80	people	just
31	about	which	81	many	new
32	yes	an	82	it's	these
33	read	she	83	please	also
34	I'm	were	84	his	any
35	me	her	85	new	first
36	look	we	86	word	very
37	school	one	87	picture	know
38	friend	there	88	right	people
39	will	all	89	use	see
40	want	been	90	should	after
41	they	their	91	hi	such
42	play	if	92	eat	should
43	there	has	93	love	where
44	good	will	94	food	because
45	am	so	95	now	most
46	think	would	96	say	how
47	no	no	97	let	back
48	from	what	98	mom	get
49	speak	can	99	great	way
50	day	when	100	favorite	don't

3. 교육과정 기본어휘 사용 분석

개정 교과서가 새로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근간하고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휘 관련 지침을 새로이 제시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지막으로 개정 교과서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교과서 집필 시 집필진들은 기본 어휘 목록에서 75% 이상의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필요성에 따라 25%까지는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1은 개정 25종의 교과서 코퍼스에서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 수를 나타낸다. 총 309개의 단어로 교육과정 기본 어휘로 제시하고 있는 2,315개의 13.3%에 해당하는 수의 단어가 목록 이외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한 학년을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수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초등 4년과 이후 중등 과정 5년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 훨씬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추후 몇 년간의 목록 이외의 어휘를 종합하면 그 합친 수가 기본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를 훨씬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 보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수능 준비생에게 자신이 배우는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로, 수능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수의 어휘를 별도로 학습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과연 현재 어휘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 규정이 적합한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1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 수

구 분	빈도
단어 수	309
교육과정 어휘 수와의 비율	13.3%

아울러, 위의 사항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본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2,315개의 어휘, 그것도 어휘군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어휘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 어휘 수가 영어 학습을 위해 충분한 지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³ 사실, 많은 연구들이 제2언어 학습자들이 일반 영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00개의 어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

³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에는 *beautiful*과 *beauty*, *belief*와 *believe*가 별개의 어휘로 제시되어 있어, 어휘군의 개념을 도입하여 어휘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2,315개가 아닌 훨씬 적은 수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고 있다(Laufer, 1989; Nation & Waring, 199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3,000개라는 수치는 개별 어휘수가 아니라 어휘군이라는 점인데, 이를 개별 어휘로 환산하면 보통 5,000-7,000개의 어휘라고 할 수 있다.⁴ 이에 비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휘는 2,315개의 개별 어휘수로 상당히 제한된 수라고 할 수 있다.

표 12는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로서 개정 교과서 코퍼스에서 20 이상의 빈도를 보인 단어의 목록이다.

표 12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빈도수 20 이상의 단어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club	274	29 curly	36
2 recycle	162	30 gym	35
3 tip	130	31 treasure	34
4 team	115	32 pool	33
5 blank	101	33 puzzle	33
6 smart	77	34 rainforest	33
7 magic	74	35 parrot	32
8 trash	71	36 homeroom	30
9 volunteer	67	37 folk	29
10 hike	64	38 inline	29
11 jeans	64	39 twin	28
12 outside	62	40 noodle	27
13 bookstore	60	41 sweat	26
14 cartoon	54	42 teens	24
15 online	53	43 cafeteria	23
16 classmate	49	44 nickname	22
17 hop	47	45 lunar	21
18 garbage	46	46 toothache	21
19 mobile	44	47 butterfly	20
20 allowance	43	48 clap	20
21 comic	42	49 mess	20
22 diary	41	50 candle	20
23 dip	40	51 decorate	20
24 headache	39	52 fantasy	20
25 chat	38	53 hometown	20
26 design	37	54 nervous	20
27 exam	37	55 seldom	20
28 housework	37	56 stomachache	20

⁴ 학생들이 어휘군을 중심으로 학습할 때 어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Bauer & Nation, 1993).

이들 중 *tip*이나 *team*과 같은 몇몇의 단어는 외래어로 인식되어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recycle*, *blank*, *smart*, *trash*, *hike*, *cartoon*, *garbage* 등과 같이 대부분의 단어가 높은 빈도수에서도 보이듯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는 점을 볼 때, 개정 교육과정에 기본 어휘로 제시된 목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집필된 중학교 1학년 개정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게 된 시기에 즈음하여, 개정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재로 사용되는 25개 교과서 전체를 코퍼스로 구축해서, 단어 수, 어절 수, 어휘 변이 등과 같은 수량적인 정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7차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개정된 교과서의 어휘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개정교과서에 사용된 다빈도 어휘들을 7차 교과서와 원어민 코퍼스인 BNC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 목록에서의 어휘 사용을 분석하여 현행 기본 어휘 사용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개정된 교과서의 뚜렷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교과서에는 어휘 변이 수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같은 단어를 보다 빈번하게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 교과서에 비해 듣기 자료에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아울러 컴퓨터의 발달과 사용과 맞물려 많은 기술 관련 용어들이 새로이 등장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외국 지명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을 반영하듯 기존의 미국 중심의 단어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영어 사용 국가 지명이 눈에 띄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새로이 개정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언어자료가 보다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어휘를 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이후 교육과정 개편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의 수가 원활한 의사소통 기능의 함양이라는 현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수인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교재 집필 시 최대 25%까지 기본 어휘 목록 이외의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추후 학년별 모든 교과서에서 사용될 어휘 목록 이외의 어휘 수를 산정해 본다면 그 수는 기본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수를 훨씬 초과할 것임은 자명한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현재 어휘 사용 규정, 또는 나아가 어휘 통제가 적합한 것이지도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개정 영어 교과서에 대한 거의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개정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해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교재 집필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코퍼스의 수량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인 데 반해, 후속 연구들은 코퍼스 분석의 다른 유용한 측면인 연어나 문법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작업 시 코퍼스에 문법 범주를 부착(tagging)하여 자료를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올해 개정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국한된 연구로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어휘의 사용 현황 및 어휘의 반복 횟수 등을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추후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가 출시된 후에 유기적으로 분석되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수학·영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인숙. (200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영어교육*, 57(4), 409-444.
- 권인숙. (2004). 한국 중학교 6차 및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1), 211-251.
- 김수정. (2006). *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의 코퍼스 분석: 양상 조동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설영. (2007). *EFL 환경과 ESL 환경의 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비교: 한국과 홍콩의 대표적인 교과서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유성자. (2007). *영어교과서의 연계성에 관한 코퍼스 바탕 연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장경숙. (2007).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영어교육*, 62(2), 331-353.
- 천윤희. (2008).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Bauer, L., & Nation, P. (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4), 253-279.
- Conrad, S. (2000). Will corpus linguistics revolutionize grammar teaching in the 21st century? *TESOL Quarterly*, 34(2), 548-560.
- DiVito, N. (1991). *Looking at and towards the future in French textbooks*. Paper presented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round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9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 Glisan, E., & Drescher, V. (1993). Textbook grammar: Does it reflect native speaker spee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 23-33.
- Han, Myung-Soon. (2008). Korean EFL learners' use of dictionaries: Their beliefs, lookup strategies, and actual use. *Modern English Education*, 9(1), 1-29.
- Holmes, J. (1988). Doub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9(1), 21-44.
- Kennedy, G. (1987). Expressing temporal frequency in academic English. *TESOL Quarterly*, 21, 69-86.
- Kim, Nahk-Bohk. (2008). Teaching in chunks: Facilitating English proficiency. *Modern English Education*, 9(1), 30-51.
- Ljung, M. (1990). *A study of TEFL vocabulary*. Stockholm, Sweden: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Lauffer, B. (1989). What percentage of lexis is essential for comprehension? In C. Lauren & M. Nordman (Eds.), *Special language: From humans thinking to thinking machines* (pp. 317-323).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McEnery, T., & Wilson, A. (2001).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ckay, S. (2002).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ndt, D. (1996). English corpus linguistics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ing syllabus. In J. Thomas & M. Short (Eds.), *Using corpora for language research: Studies in honour of Geoffrey Leech* (pp. 232-247). London: Longman.
- Mindt, D. (1997). Corpora and the teaching of English in Germany. In A. Wichmann, S. Fligelstone, T. McEnery, & G. Knowles (Eds.),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pp. 40-50). London: Longman.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 P., & Waring, R. (1997). Vocabulary size, text, coverage and word list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6-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im, R. J. (1999). Codified Korean English: proc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 *World Englishes*, 18(2), 247-258.
 Wilkins, D.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명

	저자명	출판사
1	배두본 외 5인	(주)교학사
2	심명호 외 7인	(주)교학사
3	장경렬 외 3인	(주)금성출판사
4	김성곤 외 4인	(주)두산
5	장영희 외 5인	(주)두산
6	김용진 외 7인	(주)도서출판디딤돌
7	김충배 외 5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8	이성호 외 5인	(주)지학사
9	이병민 외 4인	(주)천재교육
10	정국진 외 5인	(주)청색
11	김임득 외 4인	(주)현대영어사
12	강홍립 외 4인	대한교과서(주)
13	고경석 외 3인	학문출판(주)
14	이병건 외 3인	도서출판대일도서
15	정길정 외 6인	동화사

윤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978/ H.P.: 010-7377-7691
 Email: hsyoon3@hufs.ac.kr

Received 7 June 2009
 Reviewed 23 June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29 July 2009